

§ 노동과 소외

한 시간을 행복하려거든 잠(?)을 자라(혹은 술을 마셔라)
하루를 행복하려거든 낚시질(?)을 하러 가라.
일주일을 행복하려거든 돼지(?)를 한 마리 잡아먹어라.
일 년을 행복하려거든 재산(?)을 가져라(혹은 결혼?을 해라)하지만
일생을 행복하려거든 자신의 일을 사랑하라.

1. 죽어있는 삶

현대인의 삶을 규정하는 데 자주 ‘소외’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삶이 삶답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삶은 본래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 왜 삶이 삶답지 않게 되었는가, 진정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는 의문들이 제기된다.

먼저 우리의 삶을 한번 진단해 보자. 우리의 삶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일까? 이에 대해 시인이자 철학자인 엘리엇(T.S. Eliot)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우리는 텅 빈 인간
우리는 박제된 인간
서로 기대어 서서
아! 머리 속은 짙으로 가득 차 있네.

엘리엇은 자아를 모르는 현대인을 ‘텅 빈 인간’으로 부르고 세계는 총이 아니라 인간의 흐느낌으로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도 실은 죽어 있는 이 끔찍한 상황의 원인은 무엇인가? 무엇이 현대인의 내면적 공허의 원인인가? 이 주제는 청년 맑스(K. Marx, 1818~1883)가 고민했던 문제였다. 그는 『경제학-철학 초고』라는 저서에서 “인간의 유적 생활은 생존을 위한 단순한 도구로 격하”되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맑스는 내면적 공허의 문제를 인간의 자유 상실의 문제로 파악했고, 이 문제를 노동개념과 연관하여 이해하려고 했다. 그는 노동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본래적인 삶을 찾아내고자 했으며, 이와 함께 자본주의 사회에서 구체적 노동을 통해서 인간 삶의 소외의 원인을 파악하고자 했다.

2. 맑스의 소외개념

2.1 노동과 자유

먼저 맑스의 노동개념과 자유개념을 간략하게 살펴보는 것이 그의 소외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자유는 근대 이후 지금까지 인간의 기본요구로 규정되었다.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라고 선언했을 때, 그것은 인간이 신에 의존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스스로 존재한다는 선언이다. 그래서 이 선언은 근대인의 기본 요구였던 자유를 원리적으로 인정한 선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근대철학에서는 원리적으로 선언된 이 자유의 요구에 대해 의심하지 않았다. 근대철학에서 몰두했던 문제는 오히려 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사회적으로 실현할 수 있겠는가 하는 문제였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에 들어오면서 고전적인 부르주아 사회가 무너지고, 독점자본이 지배하는 사회가 출현하자 ‘자유’는 새로운 문제가 되었다.

여기서는 자유경쟁이 사라지고, 의회 민주주의도 무너졌으며, 고전적인 자율적 개인의 개념도 의심스러워졌다. 그러므로 인간이 과연 자유로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주요한 철학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자연에는 자연법칙이 있다. 자연법칙은 인간의 의식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필연적으로 작동하는,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것이다. 예를 들어 중력법칙이 있다고 할 때, 어느 누구도 이 중력법칙을 거부하며 살아갈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은 자연법칙의 노예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이러한 자연법칙이 냉혹하게 지배하는 체제하에서는 인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맑스는 ‘노동’개념을 통해서 인간의 자유를 정초한다. 그는 인간의 노동을 자연적 재료에 인간의 욕망에 적합한 형식을 부여하는 가공행위로 규정한다. 동시에 노동은 자연을 인간화하는 행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연의 주체로 등장한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연이 인간과 대립적인 것이라면, 이런 가공이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만일 자연이 하나의 법칙만을 가지고 있다면, 인간은 그것에 복종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자연에는 다양한 법칙들이 있으며, 자연 자체 내에서 이 법칙들은 우연히 결합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은 맹목적인 필연성의 세계이다. 자연이 맹목적인 필연성의 세계이기는 하지만 인간은 이 세계에 적용되는 자연법칙들을 분석하여 이것을 새로이 재구성한다. 이 같은 결합은 자연 내에 서로 대립적인 힘들을 상호 결합함으로써 자연은 인간의 욕망에 적합하게 변형된다. 이 말은 인간이 자연의 성질하나하나를 지배할 수 없고 오히려 인간이 그러한 자연적 성질에 종속되고 있지만, 이것을 교묘하게 결합함으로써 인간은 자연을 지배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이것이 바로 ‘이성의 간지(die List der Vernunft)’이다.

이 점에 대해 맑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자유란 자연법칙으로부터 공상적인 독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법칙을 인식하고 일정한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연의 필연성들에 대한 인식을 기초로 우리 자신과 외부 세계를 지배하는 데 있다. (엔겔스, 『반뒤링론』)

2.2 자본주의와 소외

맑스는 인간의 자유와 노동의 관계에 대한 위와 같은 파악을 토대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의 삶의 모습을 파악한다. 우리는 소외라는 개념과 연관시켜 다음 두 가지를 주목하고자 한다. 첫째, 자본주의 사회는 봉건사회나 사회주의 사회와는 달리 인간의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되는 사회이다.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와서 모든 인격적인 구속이 사라지고, 적어도 인격적인 자유가 성립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그러기에 자본가는 노동자를 강제적으로 노동시킬 수 없으며, 자유로운 계약관계를 통해서만 노동자의 노동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자본주의 사회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편에는 자본을 집중한 자본가가 있어서 그 자신의 노동력 외에 다른 노동력을 구입하여야 하며, 다른 한편에는 모든 자본을 상실하고, 노동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자신의 노동을 판매하지 않으면 안 되는 노동자가 존재해야 한다. 이 두 가지 조건이 결합하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노동력이 상품으로 판매된다.

둘째,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에 의한 잉여노동이 자본가에 의해 착취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착취는 어디까지나 경제적 관계에 의존하는 것이다. 즉 자본가는 노동자의 노동력을 구입했기 때문에 그 노동력에 의해서 생산된 모든 것은 자본가의 소유이다. 그렇기때문에 이 같은 소유권의 원리에 따라 자동적으로 노동자에 의한 잉여노동이 자본가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노동자가 상품을 많이 생산하면 할수록, 그는 더욱더 저렴한 상품이 된다. 인간세계에 대한 평가절하는 사물세계에 대한 이용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다. 노동은 상품만을 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노동자를 하나의 상품으로서 생산한다.(맑스,『경제학-철학 초고』)”

여기에서 잉여가치가 자본에 귀속되고, 자본에 의해서 노동이 지배하게 됨으로써 그는 결국 자신이 생산하는 자본에 의해서 지배되고, 이러한 지배는 노동자가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면 할수록 더욱 심화된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단순히 자신을 노동자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값싼 상품으로 재생산한다고 한다. 이를 통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인간소외의 물질적 기초가 마련된다. 맑스는 이것을 “생산물로부터의 소외”라고 부른다.

맑스는 이러한 소외의 물질적 기초 위에서 인간의 삶에 대해 문제를 삼고 있다. 이때 그가 이용한 개념이 소외라는 개념이다. ‘소외’는 어원적으로 ‘판매(alienate)’에서 유래된 개념으로서, 여기서 말하는 소외란 “자기 자신에 의해서 생산된 것이 자신에 대해 소원해지고, 대립적이 되고, 심지어는 자기를 지배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 네 가지 인간소외

1) 노동은 범죄가 된다: 노동자는 자신의 유일한 상품인 노동력을 생산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여 왔다. 교육을 통해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능력, 즉 노동력을 발전시켜 왔다. 그러나 그의 운명은 전적으로 노동력을 구입하는 자본가에게 의존한다. 만일 자본가의 편에서 볼 때 그의 노동력이 소용없다면, 그는 그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존의 권리를 박탈당한다. 생존하기 위해서 노동자가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가장 변칙적인 범죄를 저질러야 비로소 자기 것으로 차지할 수 있는 대상이 될 때 인간소외가 발생한다.

2) 노동은 놀이가 되지 못한다: 노동과 놀이는 둘 다 인간의 육적, 정신적 능력이 쓰여진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힘들기로 한다면 놀이 역시 노동에 못지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이는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합목적적인 활동이라는 점에서 인간을 즐겁게 한다. 만일 누가 동일한 놀이에 참여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다면, 그 놀이는 흥미로울 수 없다. 놀이는 스스로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라 행동할 때 우리에게 흥미를 줄 것이다. 즉 합목적 활동 자체가 흥미의 요소이다. 그러나 노동은 어떠한가? 자본주의하에서 자본뿐만 아니라 노동력 역시 자본가의 소유이고, 이러한 소유권에 기초하여 자본가는 생산을 계획하고 운용할 권리를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비록 실패한다고 하더라도 자본가는 그 행동 과정 가운데서 흥미를 지니게 되지만 그에 반해 노동자는 오직 자본가가 시키는 대로 할뿐이며, 따라서 흥미를 가지지 못한다. 더구나 자본주의의 발전에 따라서 포드 테일러 시스템은 노동자를 거의 기계의 부품으로 만든다.

3) 유적 존재로부터 소외된다: 맑스의 유적개념은 전통적인 의미의 보편성이라는 개념과 달리 ‘목적’이라는 의미로 사용된다. 맑스가 인간은 유적 존재라고 할 때, 유적 존재란 인간이 세계

의 목적이라는 의미이다. 즉 인간은 세계에 자기의 목적을 실현하는 주체적인 존재라는 의미이다. 이런 점에서 유적 존재의 구체적 실현은 노동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은 자연적 재료를 변형시켜 인간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변형의 과정이며,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이중화한다. 즉 마음 속에 선재하는 개념이 노동을 통해 대상적으로 구현된다. 그런데 맑스에 의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이러한 세계를 창조하고 인간의 주체성을 실현하는 활동이 아니고, 오히려 노동은 단순히 생존을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게 된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했듯이 노동은 자기 자신의 활동이 아니라, 자본가에 의해 강요되는 강제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4) 인간으로부터 소외된다: 인간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맞서 있는 상태는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 맞서 있는 상태 속에서 비로소 현실화되고 분명히 표현된다. 노동과정에서 노동자는 소외감을 느끼고 결국 자신의 자아와 대립하게 되며, 타인에게 이러한 대립이 전가되면서 타인과 자신이 맞서 경쟁하면서 타인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끼고 자기자신도 소외된다. 따라서 인간들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는 갈수록 더욱더 직접성을 상실해 가면서 인간에 의한 인간의 소외가 초래된다.

2.3 맑스 소외론에 대한 결론 및 문제점

맑스의 소외론은 근본적으로 자유로운 인간관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러한 인간의 주체성이 상실됨으로써 인간은 동물적 생존의 수준으로 격하되었고, 그 결과 내적 공허감에 시달리며, 우리는 살아 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체성의 실현으로 소외의 극복, 내면적 공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가? 최근 이러한 주장에 대해 부정적인 전망이 제기되었다. 예를 들어 자본주의의 물질적 기초가 사라지고 사회주의 사회와 같이 인간 주체성을 실현할 수 있는 물질적 전제가 마련되었다고 했을 때, 여기서 인간의 소외가 더 이상 없을 것인가 하는 것이다. 사실 현실적으로 사회주의 사회에서 이런 구상이 실현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현실의 사회주의 사회에서도 소외는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제기된 주장은 인간소외의 원인은 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러한 주장은 근본적으로 삶의 의미가 주체성의 실현에 있다고 보지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이러한 ‘주체성’ 이야말로 인간을 노예화시키고, 삶을 삶답게 하지 못하는 소외의 원인이라고 파악한다. 이러한 주장은 프랑크푸르트학파의 대표자인 하버마스(J. Habermas)와 포스트모더니즘의 이론적 선구인 푸코(M. Foucault)에 의거한다.

3. 소외에 대한 푸코와 하버마스의 이해

1960년대 유럽사회는 전쟁의 폐허로부터 탈출하여 고도의 물질적 풍요를 이룩했다.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생산체제가 구축되고, 노동자 역시 사회보장제도 덕분에 유례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억압적 사회제도는 더욱 강화되었고 사회의 모든 분야로 확산되었다. 공장은 대규모 병영과 같이 되었으며, 학교는 사회에 순응하는 인간을 만드는 제조창이 되었다. 그러기에 물질적 풍요는 공허하게 느껴졌고, 진정한 삶의 회복은 아득하게 느껴지게 되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물질적 풍요의 시대에 왜 억압, 소외가 더

욱 강화되는 것인지를 파악하고,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철학적 시도들이 나타났다. 이러한 시도에 대표적인 철학자가 독일의 하버마스(J. Habermas, 1929~)였고, 프랑스의 푸코(M. Foucault, 1926~1984)였다.

푸코와 하버마스는 동일한 시대, 동일한 문제와 씨름했다. 그들은 소외의 원인을 근대를 이끌어 온 이성애 혐의를 둔다. 즉 근대 계몽주의 철학으로부터 비롯된 근대적 이성은 한편으로는 자연을 객관화하여 이를 지배하며, 이런 가운데 자연을 착취하는 대규모적 기술을 발전시켰고, 그 결과 물질적 풍요를 달성했다. 그러나 다른 한편 근대적 이성 때문에 인간자신이 객관화되어, 지배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다. 근대적 이성은 그 자신을 주체로서 해방시키면서 동시에 자신을 노예화시키는 이중적 결과를 자아낸다.

그러나 두 철학자들이 나아가는 방향은 서로 대립된다. 하버마스는 근대적 이성을 도구적 이성이라고 비판함에도 불구하고 이성의 한계 내에서 대안을 모색했고, 푸코는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반이성의 권리를 회복시키려는 입장을 취했다.

3.1 푸코의 권력-지식 체제

푸코는 억압이 원천, 즉 소외의 원인이 근대적 이성에 있다고 보면서 근대적 이성이 생성되는 과정에 주목한다. 그는 근대적 이성이 부르주아 권력의 산물임을 보여주면서 그 종립성 및 비당파성이라는 환상을 깨뜨리려고 한다. 권력과 지식의 관계를 보면 권력이 지식에 어떻게 의존하는가를 보여주는 비판이 대부분이다. 즉 지식이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이데올로기를 제공함으로써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푸코는 오히려 지식이 권력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권력은 지식에 그 대상을 제공하며,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

푸코는 이런 지식의 의존성을 확인하기 위해 담론분석을 시도한다. 의사와 환자의 관계가 그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에 대해 단순히 어떤 판단을 내린다. 이 판단은 환자의 행위를 유발한다. 단순한 상황판단이 어떻게 어떤 행위를 야기시키는가? 여기에는 표면적으로 보면 어떤 강제도 없다. 마치 환자가 주체적으로 행위하는 것처럼 보인다. 푸코는 이 이유를 권력에서 찾는다. 환자는 사실 의사들의 판단이 옳은지 스스로 확증할 수 없다. 환자는 의사의 판단을 믿는데, 그 믿음은 결국 제도의 산물로서의 의사에 대한 믿음이다. 즉 의사는 공인된 교육기관을 통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을 통해 제도적으로 보장된 직업이다. 의사에 대한 환자의 믿음은 사실 국가권력에 의해 보장되어 있는 제도로서의 의사에 의해 성립된다. 그러므로 권력은 의사를 낳으며, 의사의 판단은 환자의 행위를 낳는다. 사실 의사는 권력의 대항자에 지나지 않으며, 권력이 주체이고, 환자의 행위는 권력의 효과인 셈이다.

이와 같은 담론분석을 통해 푸코는 구체적으로 근대 이성적인 인간과 학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한다. 그는 이를 주로 광기의 역사, 감옥의 역사, 성의 역사와 같이 기존의 역사에서 간과되었던 반이성의 역사를 통해 분석한다. 우리는 이 가운데 광기의 역사를 간략하게 살펴보기로 하겠다.

르네상스 시대만 해도 광인은 일종의 예언자로 취급되었으며, 사회로부터 엄격하게 격리되지

않았다. 그들은 사회의 주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나 고전주의 시대에 이르면, 광인은 걸인이나 부랑자와 마찬가지로 취급되었다. 그들은 모두 노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부르주아 권력에 의해 반사회적인 존재로 규정되었다. 권력은 사회에 위험한 존재인 이들을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구빈원과 같은 곳에 수용했다. 여기서 비로소 광기와 이성의 구별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18세기에 이르면 이제 광인은 다른 반사회적 인간, 즉 걸인이나 부랑자와 구별되었다. 급속한 산업혁명으로 노동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자 걸인이나 부랑자는 수용소에서 해방되어 노동자로 충족되었다.

그러나 광인은 노동이 불가능한 인간으로 간주되어 따로 수용되었고, 이들을 노동자로 만들기 위해 인도주의라는 이름으로 치료가 시작되었다. 이때 처음으로 정신병원이 세워진다. 정신병원에서 광인은 치료라는 명목으로 사실은 훈육의 대상이 된다. 의사들은 일반인이 광인에게 말을 걸지 못하게 하거나, 광인 앞에 거울을 세워둠으로써 광인이 그 자신을 스스로 객관화시켜 스스로를 인식하게 만들거나, 그에게 체벌을 가함으로써 광인이 자신을 주체적으로 지배하는 인간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다.

이렇게 하여 광기와 이성의 엄격한 구별이 완성되며, 동시에 이성에 의한 광기의 지배가 시작된다. 광인은 강제적으로 부르주아 권력이 요구하는 주체(자기를 스스로 지배하는 인간)로 만들어졌다. 이처럼 권력이 대상으로서 인간을 창조하자, 이제 인간에 관한 이성적인 과학이 출현했다. 이 과학은 인간을 객관적 대상과 같이 관찰하며, 인간을 지배하는 기술을 발전시켰다. 그러므로 푸코에 의하면 근대 이성적 인간과학은 부르주아 권력의 결과에 지나지 않는다. 결국 풍요의 시대에 억압의 원천은 풍요를 산출하는 이성자체가 본래 억압적이었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억압이 없는 해방된 사회는 무엇을 근거로 세워질 수 있는가? 이성이 아니라면 반이성에 근거한 사회인가? 푸코는 계보학적 연구를 통해 권력과 지식의 체계를 단순히 기술하며 그 자신은 어떤 권력지식 체계가 다른 것보다 더 정당하다고 주장하지 않으며, 그는 어느 편을 드는 것을 거부한다. 심지어 권력이 악이고 그에 대한 저항은 선이라는 무정부주의적 교의조차 거부한다. 따라서 푸코는 계보학은 비판이 아니라 억압적인 권력지식 체계에 투쟁하기 위한 전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푸코의 입장으로서 새로운 사회의 대안을 제시할 수 없다고 하버마스는 비판한다.

3.2 하버마스의 대화적 이성

새로운 사회규범은 어떻게 정초될 수 있는가? 이 문제에 대해 하버마스는 대화적 이성개념을 통해 극복하고자 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간은 도구적 이성과 다른 대화적 이성을 가지고 있다. 하버마스는 대화적 이성이 가능함을 일상적인 의사소통행위에서 찾는다.

우리의 언어는 명제적 내용과 함께 비언표적 힘을 가진다. 언어는 화자가 그런 명제적 내용을 말함으로써 청자의 어떤 대응을 불러일으키는 힘이다. 예를 들면 나는 무엇을 주장한다. 그러면 그런 주장은 청자로 하여금 진리탐구라는 일정한 인간관계로 들어오도록 하게 한다. 하버마스는 이러한 행위를 의사소통행위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의사소통행위가 단순히 언어로 구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까? 즉 의사소통 행위를 가능하

게 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앞에서 푸코는 이것이 권력의 효과라고 주장했다면 하버마스는 이런 관계를 형성하는 힘을 의사소통행위 자체에서 찾으려고 한다.

그에 의하면 의사소통행위의 힘은 화자가 언어행위와 더불어 일정한 의무를 스스로에게 가하고, 또한 그 책임을 스스로 진다는 것 속에서 찾는다. 즉 내가 만일 무엇을 주장한다면 나는 나의 주장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에, 그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경험적 근거를 세울 것이며 그것을 위해 심지어 보다 근본적인 이론적 전제들에 대해 기꺼이 토의할 것이라는 의무를 지고 책임을 떠맡는다. 또한 내가 무엇을 명령한다면, 나는 나의 명령이 정당하다는 것을 그 규범적 전제들을 통해 입증할 것이며, 그것을 위해 기꺼이 그 규범적 전제 자체를 다시 토의할 수 있는 의무를 지며 책임을 떠맡는다. 이처럼 스스로에게 의무를 가하고 책임을 진다는 것이 의사소통행위가 가능한 보편적 근거이며, 이것을 하버마스는 '대화적 이성'이라고 규정한다.

하버마스에 의하면 인간은 이러한 대화적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구적 이성에 의하지 않고서도 새로운 사회규범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사실 어떤 주장이 진리냐 아니냐 하는 것도 단순히 경험적 증거에 의해 입증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왜냐하면 원초적인 경험적 문장조차도 이미 이론적 개념들을 함축하고 있으며, 따라서 단순히 경험을 통해서 입증되거나 반박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실 자연과학의 역사를 본다면 과학적 진리가 사회적으로 합의에 의해 형성되어 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하버마스는 윤리적 규범에 대해서도 인간의 본성을 전제하고, 이로부터 끌어내는 것을 반대한다. 이 역시 자유로운 의사소통행위를 통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산출된다고 본다. 즉 규범은 이미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합의함으로써 비로소 생겨난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인간 삶의 소외의 원인, 인간을 수단화하는 원인을 두 가지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나는 주체적 인간관에 바탕을 두고 자본주의적 노동에서 소외의 원인을 찾는 입장이었다면, 다른 하나는 주체적 인간관에 반대하며 주체 중심적 이성에서 소외의 원인을 찾는 입장이다. 과연 그 중 어느 것이 올바른가?